

# “전통문화도시 전주 자리매김 힘 모아주길”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 기자간담회 갖고 성과·소회 밝히

“우수하고 차별화된 전통문화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주가 전통문화산업의 생산기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5일 전당 1층 감로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2년 4개월이 지나 임기를 한 달 앞둔 지금, 그간의 성과와 함께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취임식에서 김 원장은 ‘함께, 창신의 물결을 타자’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전주가 호남의 수부로서 장차 전통문화의 수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도영 원장은 먼저, 한지의 생산·소비 그리고 전통성과 미래를 담아내는 집적화 단지의 K-한지마을 조성사업을 기획한 것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한지마을 조성은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전통종이 산업과 교육의 성지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전북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교과서에 한지를 일부 사용해 교과과정에서 한지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 향후 기록문화유산으로써 한지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당이 중심이 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환경청, 전주시, 익산시, 신협중앙회 등 5개 기관이 함께 손잡고 익산 왕궁 축사 매입지 약 3만 평에 한지 원료인 다펀을 심어 수입에 의존했던 한지원료를 국산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전주국제한지산업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5일 전당 1층 감로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2년 4개월이 지나 임기를 한 달 앞둔 지금, 그간의 성과와 함께 소회를 밝혔다.

대전으로 명칭을 변경, 축제를 단순히 보고 즐기는 문화 체험의 장이 아닌 산업적 측면과 글로벌화의 초석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이어 한식분야는 전주음식문화 아카데미 및 손클럽과 인문학과 함께하는 전주음식 강좌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주음식 한식차림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음식이 어우러지고 상호작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국내의 유관기관과의 업무교류 및 협약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외연확장에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미래 문화강국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한지, 전통놀이, 한식 등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 및 친밀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젼도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지난해 9월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의 산업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관광도시 전주 조성을 위해 앞으로 중앙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가 가진 우수성과 산업적 잠재력에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해 전통의 유지·계승을 넘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통문화를 통해 전주가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발달장애인 사진작가 전시회

전문 사진작가 협력 전북자치도 아름다운 풍경 담아 13일까지 개최

발달장애인 사진작가들이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을 여행하며 담은 아름다운 풍경과 사탑 사는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사진 작품들이 전북자치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일반도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두드림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현효미)는 성인 발달장애인 사진작가 35명과 전문 사진작가 4명이 협력해 촬영한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우리가 바라본 세상’이라는 제목의 4번째 사진 작품전시회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의 명소를 함께 다니며 촬영한 사진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작가들은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 속의 소중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관람자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창의성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며,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전북의 아름다운 풍광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4일 오후 2시에 열린 전시회의 오프닝 행사에서 두드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현효미 센터장은 “이번 전시회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직접 선택하고 제목을 붙인 최고의 작품 1점씩을 선정하여 선보인다”며, “2022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벌써 4회째를 맞이한 사진 교실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독특한 시선과 감정을 담은 작품들이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발달장애인 작가 박모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35명의 발달장애인 작가가 찍은 사진 작품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전북 곳곳에서 느낀 아름다움과 감정을 사진으로 담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으니 이번 전시가 발달장애인의 작가정신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1층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관람은 무료이고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두드림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윤지 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창작물을 널리 알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생각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만들고자 생각하며, 관람객들에게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참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고창한밤’ 여행경비지원 모집규모 확대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민생경제회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행경비지원사업인 ‘고창한밤’의 모집규모를 확대한다.

5일 고창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여행경비 지원사업(고창한밤)의 2~3월 모집 규모를 기존 30팀에서 60팀으로 늘린다.

고창한밤은 1박2일 이상 고창을 여행한 팀이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여행경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116팀(335명)이 참여해 숙박업소, 음식점, 교통비 등 4800만원을 고창에서 지출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통해 위기의 관광업계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국립합창단 특별 공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6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서현석)과 공동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특별공연 ‘하나된 꿈, 희망의 목소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전북의 문화예술 역량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국립합창단 민인기 단장의 지휘 아래 50명의 단원이 웅장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원을 담아 한국 가곡을 비롯해 팝송과 오페라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합창단은 1973년 창단된 이래 50년간 한국 합창음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되길 희망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로 도약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꿈이 노래가 돼 울려 퍼지는 순간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립합창단이 주최·주관하고, 전북은행과 전주 MBC가 후원했다.

관람은 전석 무료며, 입장권은 당일 오후 4시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장은성 기자

## 임실군, 필봉정월대보름굿 행사 8일 개최

임실군이 오는 8일 ‘제44회 필봉정월대보름굿’ 행사를 강진면 필봉마을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44회를 맞이하는 필봉정월대보름굿은 필봉마을에서 행해져 오던 마을굿과 함께 한해의 목은 액을 털어내고 새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기국, 당산제, 샘굿, 마당뵈미, 판굿 순서로 진행되며, 국가무형유산 임실필봉농악의 정수를 알 수 있는 흥겨운 판을 볼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의 한 해 소망을 담은 소지가 달린 달집을 훨훨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는 달집태우기를 재현한다. 달집을 태우고 나면 다시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대동놀이 굿판으로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푸진 굿판이 열린다.

필봉농악은 필봉마을에서 행하던 마을굿의 본연의 가치와 형태를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대보름굿을 통해서 그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군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보름 행사 관련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진행할 계획이다. /임실=진홍명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